

전주 제1산단 탄소사업 등 첨단업종 재편

2020년까지 868억 투입 ... 재생 사업 추진

급속한 정비·철길 명소화사업으로 근무 환경 향상

노후화가 심각한 전주 제1국가산업단지 가 급속한 정비사업과 철길명소화사업 등 다양한 재생사업으로 재창조된다.

전주시는 16일 “팔복동 전주 제1산업단지 에 대한 재생계획(변경)과 재생사업계획, 지형도면 등이 최근 승인·고시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868억원(국비 295, 시비 573)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새롭게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총면적 180만6000㎡의 전주 제1산업단지를 산업시설용지(127만6000㎡)와 지원시설용지(13만7000㎡), 주거시설용지(1만6000㎡), 공공시설용지(37만7000㎡)

로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또 산업단지 구조를 탄소산업 관련 친환경 첨단업종으로 재편하기 위해 전자 및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특화전략업종으로 선정 한 뒤 신규 유치업종에 포함했으며, 기존 섬유 및 의복제조업, 펄프 및 종이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 4개 업종은 유치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도로신설·개선 27개 노선(9.3km), 공원 2개소(2만418㎡), 주차장 4개소(1만 3549㎡), 녹지 2개소(6469㎡), 공공공지 4

개소(2만2456㎡) 등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시는 특히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금학천과 산업철로 주변은 철길 명소화사업과 급속한 정비사업 및 산단형 문화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주시민들과 덕진공원·한옥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재생사업 관련 부문조사에서 입주업체들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한 팔복정로(대로1-1호선)에 대한 신설 및 확장공사도 오는 201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주 제1산단에서 전북혁신도시까지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되며, 김제와 정읍 등을 오가는 이동시간도 단축돼 산단활성화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시는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전주 제1산단 이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은 물론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유치는 물론 인근 주민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돼 쇠퇴해 가는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제1산업단지는 지난 1969년 조성된 이후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현재 휴비스와 전주페이퍼 등 140여개 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자 노트

10억 횡령 ‘침묵’ 일관 완도금일수협



정은조 서부취재본부장

지난해 여름 완도금일수협에서는 완도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대형횡령 사고가 터졌다. 한 여직원이 10억원이 넘는 조합원의 예금을 횡령한 것이다. 이 여직원은 2년여동안 야금야금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결국 자신의 예금이 인출되지 않는 예금주의 신고로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평소 완도금일수협의 직원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첨단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금융 업무시스템마저도 내부 도둑을 막지 못했다 하니 외부인의 시각에선 쉽게 수금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일부 임원의 묵인의혹도 흘러나온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여직원 횡령사고 당시 지점운영·관리 총책임자인 A지점장이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A지점장은 지난 2010년 지점장으로 승진한 뒤 올해로 6년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여직원이 2년간 고객돈을 횡령할 때도 지점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완도금일수협조합원이기도 한 일부 어민들은 “대형횡령 사고가 터졌는데도, 지점장이 책임은커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

서 “여직원이 수년간 조합 돈을 빼돌렸는데도, 지점장 등 직속 상사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수협측은 냉소적일 정도로 무반응이다.

금융기관인 수협이 가장 중요한 신뢰와 신용 모두를 상실했지만, 이를 회복하려 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지역 어민 조합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직원 횡령사건으로 한번 금이 간 완도금일수협은 내부적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협 내 일부 직원들은 순환인사 없이 특권을 요직에 고정 배치하고, 서열을 무시한 승진 등 무원칙 인사로 근무의욕마저 상실했다고 하소연한다. 제2, 제3의 금융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수협은 어민(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화된 금융기관이다. 수협의 주인은 지점장도 조합장도 아닌 어민이자 조합원이다. 수협이 비정상화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어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형 횡령사고에 대한 수협임원의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해본다.

/ejchung@kwangju.co.kr

남원시 원천마을 ‘겨울 정취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

두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남원시는 16일 “산내면 원천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겨울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겨울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겨울철 먹을거리와 겨울체험 등 겨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을로 자치단체와 체험마을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곳이 선정됐다.

산내면 원천마을은 뽕사골 계곡, 신선들레길 등 지리산 천혜의 자연환경과 천년 고찰 실상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천마을은 지리산 뽕사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신선과 선녀들이 놀다갔다는 산신바위와 400년 세월을 이어온 외돌솔배기, 소동폭포 등 수려한 자연이 있으며, 지리산 꿀 사과, 감, 고사리, 자연산 송이 등 마을 특산물도 다양하다.

주변에 있는 지리산 노고단과 천왕봉, 뽕사골 계곡 등은 겨울철이면 눈 덮인 전경 등이 일품으로 꼽히며, 천년고찰인 실



남원 원천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국산 콩을 재료로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상사와 국악의 성지 박초월의 생가 등 주변에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원천마을은 설경이 아름다운 신선들레길 걷기와 전통 눈썰매타기, 뽕과 팥을 녹여가는 뜨끈한 찜질방 체험 등을 비롯한 농가에서 수확한 콩으로 직접 만든 두부와

지리산 산채, 토종닭 백숙 등 시골 밥상을 즐길 수 있다.

지리산원천체험휴양마을(063-636-2032)에서는 농촌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하며 숙박체험시설과, 마을 캠핑장, 민박 등이 조성돼 있다.

원천마을 관계자는 “옛 신선들의 쉼터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원천마을에서 전통 눈썰매타기, 찜질방 체험, 두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통해 농촌의 따뜻한 여유를 즐기며 맑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규성기자 jgs@r

정읍시 저소득층 135세대 희망의 집 고쳐주기 ‘호응’

안전점검·보수 등 사업비 3억 5000만원

정읍시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소

득층 135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점검하고 개보수했다.

원천마을 관계자는 “옛 신선들의 쉼터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원천마을에서 전통 눈썰매타기, 찜질방 체험, 두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통해 농촌의 따뜻한 여유를 즐기며 맑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규성기자 jgs@r

애초 88세대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공개 입찰 등을 통해 목표보다 47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봉사단체와 함께 소외계층의 주거시설에 대한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백기갑기자 parks@

고군산군도 3개 교량 명칭 공모

내달 8일까지 ... 내년 개통 예정

군산시가 내년 개통 예정인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 구간내 교량 명칭을 공모한다.

군산시는 16일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소의 교량 중 3개소에 대한 명칭을 내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고군산군도 연결 교량에 걸맞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 ▲표절 또는 모방하지 않고 고군산군도의 독창성을 잘 나타내는 명칭 이면 된다.

공모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 및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명칭 중 심사위원회에서 10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명칭은 군산시와 도 및 국가지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고 고군산군도 연결교량의 새 이름으로 확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8.8km 2차선 규모에, 도로 양쪽에는 3.25m씩 자전거도로 인도가 개설된다.

/군산=백기갑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품 전방양호 매3억 8천만원
2. 나주시 용신동 대지 및 전5,100㎡ 황토주택3동 교통편리 매7억원
3. 나주시 봉황면 축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정포 대지 315㎡ 임야2,187㎡ 주택96㎡ 공장75㎡ 전포26㎡ 매2억4천만원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커피숍 최적지(신주막/구창고매 5억9천

농지 / 임야

1.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전1,528㎡ 혁신도시인근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매5억8천만원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6,331㎡ 혁신도시 근거리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매7억6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답4,000㎡ 혁신도시인근 매2억원
4.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전 김나무 과수원 6,165㎡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매3억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매7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답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원
7.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전 7,273㎡ 혁신도시근거리 보전 관리지역 연수면 공장적합 투자유망 매8억5천만원
8.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답13,530㎡ 면소재지 매2억4천만원
9.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답7,610㎡ 2차선국도변 투자유망 매1억5천만원
10.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1,384,140㎡ (대지, 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산산 적합 매30억원
11.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과수원 24,884㎡ 매4억8천만원
12.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102,480㎡ 도로양호 일부개간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원
13.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전 배18년생 과수원 7,934㎡ 혁신도시 1km 투자유망 매7억2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시내 호텔 대지 923㎡, 건평 2296평, 지하 2층 지상 12층 객실 45실 등 요양병원 등 적합 (은행 24억 매도 45억)
- 광산구 월계동 APT 상가동 지하 945㎡ 시설 좋은 목욕탕 감정이 9억6백 은행동 5억 개인사업에 적합 교환가능 7억천
- 무안군 망운면 옥지에서 650㎡ 떨어진 독립성 별장, 전원주택지, 오양시설등 적합, 공사가 2억6천 감정 5억3천천 매도 3억6천
- 금남로 5가 대로점 (북구 금남로) 북동 대지 270㎡ 건평 194㎡공시지가 7억6백 매도 5억 천

투자 / 매도 / 교환

- 대인시장 입구 대지 394㎡, 건평 1455㎡, 전세2억, 월700선 15억5천
- 보성군 화천면 영천리 11990㎡ 전원주택 단지·팬션·종교시설·오양 시설 등 다용도 은행 8천 매도 3억2천6백만원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대지 883㎡ 매도 9400만원
- 담양군 남면 광주동 부근 가문학관 부근 대지 2208㎡ 전원주택형 빌라, 대형 식당등 적합 5억 8천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펜션 적합지 2161㎡ 교환가능 3억3천
- 전원주택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 건평 73㎡ 9500만원
- 담양읍 APT 부지 2중 주차지 4838㎡(1463평) 은행7억 매도 15억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자연녹지 1861㎡ 가든·별장등 적합 1억천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펜션·전원주택 적합 5000여㎡ 평당 8만원
-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산 34809㎡ 매도 1억5백
-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도로접 1884㎡ 공장 등 적합 2억 9천
- 광산구용동 평동중학교, 평동공단 부근 1중주차지 1787㎡ 빌라·원룸 등 적합 공시지가 4억 매도 평당 115만원(6억42천)
- 충장로 5가 건물 대지 265㎡ 건평 995㎡ 매도 8억8천

임대

- 지하철 금남로 4가역 접한 건물 2층 94평 (3천에300) 3층 94평 (3천에250) 4층 60평 (천에100)
- 지하철 금남로 4가역 접한 건물중의 5층 357㎡ 성형외과 했던곳 병의원 임대 (6천에230) 1층 59㎡ 커피숍 등 적합 (5천에113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청과 한전 부근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북구 오룡동 8층근린시설 첨단산업단지내 대지1652.9㎡ 건물2991.3㎡ 건물상태양호 감정이35억4천2백 최저가9억8천3백 감정가의56%

★화순군 동면 언도리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토지146411㎡ 건물3290㎡ 화순읍에서5분거리위치 감정이84억4천3백 최저가37억7천8백 감정가의45%

★북구 두암동 쌍둥이주유소부근 지하1층~지상4층 대지386㎡ 건물1,132㎡ 점근성, 가격★★★★★ 건물리모델링중, 왕복4차선도로접 코너입지 감정이10억4천9백 최저가7억3천4백 감정가의70%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2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감정이30억6천5백 최저가17억1천6백 감정가의56%

★서구 마루동 주유소 광주아울렛부근 대지1132㎡ 건물277.9㎡ 2층건물 감정이 9억9천6백 최저가 6억9천7백 점근성, 광고효과★★★★★ 감정가의70%

※전지역 병원(부지)매매, 매입 상담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

개인 병원 부지

- ☑ 상업지역 108평
- ☑ 사통팔달 교통요지
- ☑ 터미널부지 내
- ☑ 인구증가 예상지

귀향공인
010-5236-7458
KTX 개통 송정역 인근 부동산전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길 63년

光州日報

에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